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성모님과 함께 하는 세나클 여정 피정 안내
일시- 9 월 7 일(금요일) 오후 4 시 -9 월 9 일 오후 2 시
장소- St. Leo Benedictine Abbey, St. Leo FL 33574
대상-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
참가비- \$200
강사-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천주교 사도직회)
- ※ 제 12 회 돈보스코 골프대회 (탐파 성당)
일시- 10 월 7 일(주일) 오후 1 시
장소- Temple Terrace Golf & Country Club
신청마감- 각 본당 사목회장님께 9 월 25 일 까지

[잭슨빌]

- 유정순 리나 자매님(김현희 아네스 자매의 어머니)의 3 주년 추모 짧은연도를 미사후에 바치겠습니다.
- 9 월 23 일 주일미사는 오후 5 시에 천정기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9 월에 영명축일을 맞이하신 김정임 레지나 (9 월 15 일), 류지완 소피아 (9 월 18 일), 송재민 하상 바오로 (9 월 20 일), 김종섭 마태오 (9 월 21 일), 이범진 미카엘, 조종래 미카엘, 김명기 미카엘 (9 월 29 일) 께 축하드립니다.

[게인즈빌]

- 세나클 여정 피정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 평일미사가 9 월 14 일 7 시 30 분에, Q&A 시간이 7 시에 있습니다.
- 새식구 맞이 야외미사및 한가위 미사가 성당 필드에서 9 월 15 일 11 시부터 식사 하고 2 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69	-	-	-	\$69
잭슨빌	\$274	\$340	-	-	\$614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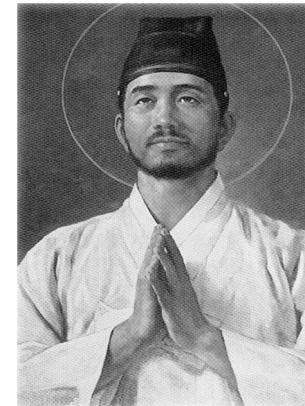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성프란치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더듬는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지만, 널리 알려져 사람들이 놀라워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군중의 외침은 오늘 제 1 독서와 연결됩니다. "그때에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자기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기는 많이 알고 있고,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취라는 굴레에 빠진 상태이지요.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해방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즐기게 되지 않을까요? 아울러 다른 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 행위는 우리에게 더 넓은 것을 생각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귀를 생각하게 하지요. 하느님의 목소리, 세상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신적 귀먹음이 세상의 많은 비극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하며, 신앙적으로 귀먹은 상태에 있다면 주님께서 "에파타!" 하시며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해야 하겠습니다. (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3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35,4-7 L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화답송] 시편 146(145),6 ㄷ-7.8-9 ㄱ.9 ㄴㄷ-10 ㄱㄴ(◎ 1 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제 2 독서] 야고보서 2,1-5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7,31-37

<예수님께서서는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신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9/8)	신미영 미카엘라	백현 가브리엘	백진 프란체스카	
	잭슨빌 (9/9)	윤미임 데레사	조종래 미카엘	조의단 아네스	이교순(카타리나) 이문자(모니카)
다 음 주	게인즈빌 (9/15)	이호석 레오폴드	천창준 레오	천송희 스텔라	
	잭슨빌 (9/16)	이교순 카타리나	이재민 토마스	렉시 베로니카	조종래(미카엘) 조의단(아네스)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81	680	461	328
잭슨빌	26	512	169	283

